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 研究

A study on The Saganpan Huayuemyung Volume 29
Composed of Fifty Volumes

柳 富 鉉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緒 言 | 分 析 |
| 2. 晋本 華嚴經 現存本の 狀況 | 4. 結 言 |
| 3.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晋本 華嚴經 가운데 50卷本 寺刊本으로서는 국내 유일본인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구명되었다.

첫째,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형태서지적 형태는 다른 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었다.

둘째,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版首題 기입 방식은 「再雕藏」과 같이 寺刊本 삼본 화엄경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셋째,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문자이동은 寺刊本 삼본 화엄경을 저본으로 한 「再雕藏」 60권본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문자이동의 모습은 時期的으로 房山石經本이 刻成된 634년 이후 「開寶藏」이 간행된 984년 이전에 나타나는 상태이다.

요어 : 진본 화엄경 한상봉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副教授 (boohyun@www.daejin.ac.kr)

접수일: 2004년 11월 15일 최초심사일: 2004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way of the “The Saganpan Huayuemyung composed of fifty volumes volume 29”. It is the one and only copy of the Jinbonhwaumkyoung collection. Also, it is called Saganbon, which is inheri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of the family, never for sale nor for outsid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bibliography form “The Saganpan Huayuemyung composed of fifty volumes volume 29” was unique, individual and original. That is, it was not affected by any other forms of literatures.

Second, the format of “The Saganpan Huayuemyung composed of fifty volumes volume 29” follows the traditional trait Saganbonsambon Hawumkyung, similar to Jaejojang.

Third, the character change of “The Saganpan Huayuemyung composed of fifty volumes volume 29” corresponds to Jaejojang, which is made up of sixty volumes based on Saganbon Sambon Hawumkyung. Over times, the character change was recorded between the year 634, where Bangsansukkyungbon was carved, and the year 984, where Gaebojang was published.

Keywords : Jinbon, Hwaumkyoung, Hansangbong



1. 緒言

華嚴經의 완전한 서명은 大方廣佛華嚴經이다. 이 화엄경은 “晉本華嚴經”, “周本華嚴經”, “貞元本華嚴經” 등 3종의 화엄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三本華嚴經”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엄경의 卷數에 있어서 晉本 華嚴經은 60卷本(또는 50卷本)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서 “60화엄”으로 부르며, 周本 화엄경은 80권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80화엄”으로, 貞元本 화엄경은 40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40화엄”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50卷本 화엄경에 대한 종래 국내에서의 이해나 소개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본 50권본 화엄경에 대한 고찰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진본 50권본 화엄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진본 화엄경의 현존본의 상황을 조명해 보고, 국내에 진존되고 있는 寺刊版 晉本 50권본으로서는 唯一本인 韓相奉이 收藏하고 있는 “寺刊版 晉本 華嚴經卷第29”를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形態書誌的 방식, 版首題의 記入 방식, 文字異同 등을 분석 고찰하여 “寺刊版 晉本 華嚴經卷第29”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晉本 華嚴經 現存本の 狀況

진본 화엄경의 현존본 상황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진본 화엄경의 유통에 관련된 사실을 조명하여 현존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진본 화엄경은 처음 漢譯(418~420년)된 이후 僧祐(444~518)가 살았던 梁代까지는 50권본 화엄경이 유통되었고, 隋 開皇 14(564)년에 즈음하여 60권본 화엄경이 출현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50권본은 南方으로 전래되었고 60권본은 北方으로 전래되었으며, 隋 開皇 17(597)년에 즈음해서는 50권본이 화엄경의 ‘正本’으로 60권본은 ‘或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唐 麟

德 1(664)年 즈음에 와서는 60권본이 ‘正本’으로 50권본은 ‘或本’으로서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60卷本이나 50卷本의 내용 분량은 모두 1087紙이었고, 1紙는 28行 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

이제 진본 화엄경의 현존본을 조사하여 分卷別, 行款別로 분석²⁾·정리해 그 상황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分卷別 狀況

(1) 不分卷本

① 房山石經本 : 「房山石經」³⁾

(2) 50 卷本

① 敦煌寫本 : 「敦煌大藏經」⁴⁾

② 大藏經本 : 「開寶藏」, 「初雕藏」, 「金藏」, 「崇寧藏」, 「毘盧藏」, 「永樂北藏」

③ 寺刊本 : 「寺刊版 華嚴經卷第29」

(3) 60 卷本

① 敦煌寫本 : 「敦煌大藏經」⁵⁾

② 大藏經本 :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再雕藏」, 「圓覺藏」, 「資福藏」, 「磧砂藏」, 「普寧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③ 寺刊本 : 「國寶 第202號」等

2) 行款別 狀況

(1) 每行 17字本 : 敦煌寫本,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再雕藏」, 「崇寧藏」, 「毘盧藏」, 「圓覺藏」, 「資福藏」, 「磧砂藏」, 「普寧藏」, 「永樂南藏」, 「徑山

1) 柳富鉉, “晉本 華嚴經 研究,” 「서지학연구」 28집(2004), 179.

2) 진본 화엄경 현존본의 분석에는 다음의 세 책이 도움이 되었다.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제12책, 10.

蔡運辰編,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1984. 제3책, 32.

肖東發, “漢文大藏經의 刻印及雕版印刷術의 發展,”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 語言文獻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628.

3) 中國佛教協會編, 「房山石經」(全30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1 책, 2-563. 「房山石經」의 이 不分卷本 晉 華嚴經은 唐 貞觀 8(634)년에 刻成된 것이다

4)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21 책, 2-538.

5)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22 책, 572-784.

藏」,「清藏」,「寺刊版 華嚴經卷第29」,「國寶 第202號」等

(2) 每行 14字本 : 「開寶藏」,「初雕藏」,「金藏」

(3) 每行 34字本 : 「契丹藏」(小字本 蝴蝶裝)⁶⁾

이상과 같이 살펴본 진본 화엄경은 分卷에 있어서 크게 50卷本과 60卷本이 있으며, 行款에 있어서 每行 17字本과 14字本 그리고 每行 34字本이 전존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한편 50卷本과 60卷本은 명칭에 나타나듯이 卷數와 各卷의 구분이 다르다. 그러나 총 34品の 모든 내용의 分量과 各品の 구분은 50卷本과 60卷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단 총 34品の 各品 아래에 다시 세분된 細品の 구분은 50卷本과 60卷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는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은 위의 분석에 나타나듯이 50卷本이며 17字本에 해당된다.

3.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分析

여기에서는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에 대해서 이 판본에서 보이고 있는 形態書誌의 形態, 版首題의 記入方式, 文字異同 등을 분석 고찰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형태서지적 형태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형태서지적 형태를 보면, 총 17張으로 되어 있고(이 중 第 7 張은 缺落되었음), 每張은 26行이며(每張의 책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50cm이고, 上下邊欄의 길이는 22.7cm이다), 每行은 17字로 되어 있다. 다른 주요 版本과 비교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寺刊版” : 총 17張, 每張 26行, 每行 17字

6) 每行 34字本の 「契丹藏」(小字本 蝴蝶裝)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이 참고된다.
千惠鳳, “浮石寺三本華嚴經板,”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佛教學論叢」, 1424-1457.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년 87-90.

「金藏」: 총 24張, 每張 23行, 每行 14字

「再雕藏」: 총 17張, 每張 24行, 每行 17字

「資福藏」: 총 ? , 每張 30行, 每行 17字

위와 같은 비교 내용을 통해 보면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형태서 지적 형태는 다른 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2)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版首題 記入方式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版首題 기입 방식은 “晋本經 第二十九卷 第□張”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른 주요 版本 과 비교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寺刊版”: “晋本經 第二十九卷 第□張”

「金藏」: “古華嚴經 第二十九卷 第□張 朝字号”

「再雕藏」: “晋經 第二十四 第□幅 朝”

위와 같은 비교 내용을 통해 보면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版首題 기입 방식은 「再雕藏」(주지하듯이 「再雕藏」의 三本 華嚴經은 「初雕藏」과 같이 「開寶藏」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寺刊本 삼본 화엄경을 저본으로 판각된 것이다)과 같이 寺刊本 삼본 화엄경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3)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文字異同

여기에서는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와 여타의 晋本 華嚴經과 對校 하여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문자이동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원문의 대조가 가능한 晋本 華嚴經卷第29는 아래와 같이 모두 11種이다.

- (1) 房山石經本 (634)⁷⁾([石經]으로 약칭함)
- (2)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寺版]으로 약칭함)
- (3) 高麗再雕藏本 (1236-1251) ([再彫]로 약칭함)
- (4) 趙城金藏本 (1148-1173) ([金藏]으로 약칭함)
- (5) 資福藏本 (1175) ([資福]으로 약칭함)

7) 中國佛教協會編, 「房山石經」(全30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1책, 2.

- (6) 磧砂藏本 (1231-1322) ([磧砂]로 약칭함)
- (7) 普寧藏本 (1277-1290) ([普寧]으로 약칭함)
- (8) 永樂南藏本 (1412) ([永南]으로 약칭함)
- (9) 徑山藏本 (1589-1677) ([徑山]으로 약칭함)
- (10) 淸藏本 (1735-1738) ([淸藏]으로 약칭함)
- (11) 敦煌寫本(50卷本)⁸⁾ : ([敦煌]으로 약칭함)

앞에서 살펴본 現存本 가운데 [石經]·[寺版]·[敦煌]을 제외한 모든 판본에 수록된 晋本 華嚴經卷第29에 대해서는 이미 「中華大藏經」⁹⁾에서 [金藏]을 底本으로 삼고 他本과 對校하여 모두 38個項의 校勘記를 첨부해 놓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39個項의 校勘記를 토대로 해서 [石經]¹⁰⁾·[寺版]을 합한 새로운 對校表를 만들면 附錄의 “文字異同 對校表 1~4”와 같다.¹¹⁾ 이것을 다시 문자이동의 유형별로 정리하여 새로운 대교표를 작성하면 附錄의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5”이다.

이제 이 대교표에 의거해서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에 나타난 문자이동의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文字異同의 유형은 같은 50권본인 「敦煌」, 「金藏」과 다르고, 60권본인 「資福藏」, 「磧砂藏」, 「普寧藏」, 「永樂南藏」, 「徑山藏」, 「淸藏」과도 다르며 유독 「再雕藏」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은 시기적으로는 「敦煌」그리고 634년에 刻成된 不分卷本인 [石經] 보다 이후에 나타나는 문자이동의 상태를 보이고, 「金藏」보다는 이전에 나타나는 문자이동의 상태이면서

8)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21책, 282.

9) 「中華大藏經」은 中國의 中華書局에서 1984년부터 1995년까지 年次的으로 刊行된 것이다. 이 大藏經은 基本的으로는 「金藏」을 底本으로 하고, 「趙城金藏」의 缺本과 未入藏된 것은 高麗 「新雕大藏經」과 餘他의 大藏經으로 補充한 것으로 總 106冊에 達하는 巨帙의 大藏經이다.

10) 「中華大藏經」의 校勘記에는 [石經]과의 對校가 있기는 하나 소략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시 대교를 진행하였다.

11) 이 대교표에는 [敦煌]이 빠져있는데 [敦煌]의 存本內容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교가 불가능하였다. 대교가 가능한 것은 별도로 대교를 하여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5”로 만들었다.

「再雕藏」과는 동일한 시기의 문자이동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金藏」은 「開寶藏」의 覆刻本이기 때문에, 「金藏」보다 이전에 나타나는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문자이동 상태는 「開寶藏」이 간행된 984년 이전에 나타나는 문자이동 상태로 인식해도 무방할 듯 하다.

결론적으로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문자이동은 寺刊本 삼분 화엄경을 저본으로 한 「再雕藏」 60권본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문자이동의 상태는 時期的으로 [石經]이 刻成된 634년 이후 「開寶藏」이 간행된 984년 이전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結 言

본고는 晋本 華嚴經의 現存本을 조사하여 그 상황을 조명해 보고, 그 가운데 寺刊版 50卷本으로서는 국내 유일본인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晋本 華嚴經은 分卷에 있어서 크게 50卷本과 60卷本이 있으며, 行款에 있어서 每行 17字本과 14字本 그리고 每行 34字本이 전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 29”의 형태서지적 형태는 다른 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었다.

셋째,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 29”의 版首題 기입 방식은 「再雕藏」과 같이 寺刊本 삼분 화엄경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넷째, “寺刊板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문자이동은 寺刊本 삼분 화엄경을 저본으로 한 「再雕藏」 60권본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문자이동의 모습은 時期的으로 房山石經本이 刻成된 634년 이후 「開寶藏」이 간행된 984년 이전에 나타나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 末綱恕. 「華嚴經の世界」, 春秋社, 1957.
東國大學校影印. 「高麗再雕大藏經」, 1976.
張忠植. 「高麗華嚴版書의 世界」, 亞細亞文化社, 1982.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蔡運辰編.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1984.
나카무라하지메著·박희준譯. 「불교경전산책」, 서울: 민족사, 1990.
山西省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遼代秘藏」, 文物出版社, 1991.
카마타시게오著·장희옥譯. 「화엄경이야기」, 도서출판장승, 1992.
金知見, 「화엄경」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1997.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
송일기. “誠庵本 晋本 華嚴經(卷20)의 經題에 관한 研究.” 「한국불교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년도 동계 전국학술대회, 2004.

“文字異同 對校表”의 說明

- 1) ‘類型’: 諸本 사이에 나타난 文字異同의 類型
- 2) ‘項次’: 「中華大藏經」제12冊의 校勘記에 收錄된 文字異同의 羅列 順番
- 3) ‘面行字’: 「中華大藏經」제12冊의 面, 行, 字數
- 4) ‘ㅇ’: 該當 文字가 없는 것
- 5) ‘△’: 該當 文字가 毀損이나 缺落되어 認識할 수 없는 것

“文字異同 對校表 1”

類型	G	E	C-Z	C-Z	C-Z	C-Z	C	C	C	C
項次	1	2	3	4	5	6	7	8	9	10
面 行 字	351中 6 5	351中 6 14	351下 9 14	351下 10 1	351下 10 2	351下 10 3	351下 10 8	351下 10 9	351下 10 10	351下 10 11
石經	○	△	△	△	△	△	△(慧)	光	普	照
寺版	○	來	滅	惡	饒	益	普	照	饒	益
再雕	○	來	滅	惡	饒	益	普	照	饒	益
金藏	身	來	滅	惡	饒	益	普	照	饒	益
資福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磧砂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普寧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永南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徑山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清藏	○	是	除	滅	衆	惡	慧	光	普	照

“文字異同 對校表 2”

類型	E	D	D	E	G-Z	G	A-Z	B	G	A
項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面 行 字	351下 17 12	352上 4 10	352上 4 11	352下 3 4	352下 15 14	353下 6 2	354中 6 9	354中 23 10	354下 19 14	355上 23 2
石經	△	△	△	△	△	○	面	見	○	淨
寺版	行	○	○	樂	○	○	△	見	○	涼
再雕	行	○	○	樂	○	○	目	見	○	涼
金藏	行	普	賢	樂	便	千	目	見	見	涼
資福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積砂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普寧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永南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徑山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清藏	得	普	賢	隱	○	○	目	者	○	涼

“文字異同 對校表 3”

類型	F	D	E	H	E	E	E	E	E	E
項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面 行 字	356上 16 11	356下 1 7	357中 1 5	357中 3 1	357中 18 1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石經	△	△	△	△	△	△	△	△	△	△
寺版	異	是念	王	名	量	○	○	○	○	○
再雕	異	是念	王	名	量	○	○	○	○	○
金藏	異	念	王	名	量	○	○	○	○	○
資福	異	念	王天	名	邊	諸	佛	如	來	隨
磧砂	用	念	王天	名	邊	諸	佛	如	來	隨
普寧	用	念	王天	名	邊	諸	佛	如	來	隨
永南	用	念	王天	各	邊	諸	佛	如	來	隨
徑山	用	念	王天	名	邊	諸	佛	如	來	隨
清藏	用	念	王天	名	邊	諸	佛	如	來	隨

“文字異同 對校表 4”

類型	E	E	E	B	I-Z	I	I-Z	I
項次	31	32	33	34	35	36	37	38
面 行 字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下 12 5	358下 17 4	358下 19 5	359上 6 14	359上 8 9
石經	△	△	△	已	△	味	△	細
寺版	○	○	○	已	法	味	那	細
再雕	○	○	○	已	法	味	那	細
金藏	○	○	○	已	法	味	那	細
資福	衆	生	心	聲	法	味	那	細
磧砂	衆	生	心	聲	法	味	那	細
普寧	衆	生	心	聲	法	味	那	細
永南	衆	生	心	聲	法	味	那	細
徑山	衆	生	心	聲	世	性	耶	雨
清藏	衆	生	心	聲	法	味	那	細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

類型	A	A-Z	B	B	C	C	C	C
項次	20	17	18	34	7	8	9	10
面 行 字	355上 23 2	354中 6 9	354中 23 10	358下 12 5	351下 10 8	351下 10 9	351下 10 10	351下 10 11
石經	淨	面	見	已	△(慧)	光	普	照
寺版	涼	△	見	已	普	照	饒	益
再雕	涼	目	見	已	普	照	饒	益
金藏	涼	目	見	已	普	照	饒	益
資福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磧砂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普寧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永南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徑山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清藏	涼	目	者	聲	慧	光	普	照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2”

類型	C-Z	C-Z	C-Z	C-Z	D	D	D	E	E	E
項次	3	4	5	6	12	13	22	2	11	14
面 行 字	351下 9 14	351下 10 1	351下 10 2	351下 10 3	352上 4 10	352上 4 11	356下 1 7	351中 6 14	351下 17 12	352下 3 4
石經	△	△	△	△	△	△	△	△	△	△
寺版	滅	惡	饒	益	○	○	是念	來	行	樂
再雕	滅	惡	饒	益	○	○	是念	來	行	樂
金藏	滅	惡	饒	益	普	賢	念	來	行	樂
資福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積砂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普寧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永南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徑山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清藏	除	滅	衆	惡	普	賢	念	是	得	隱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3”

類型	E	E	E	E	E	E	E	E	E	E
項次	23	25	26	27	28	29	30	31	32	33
面 行 字	357中 1 5	357中 18 1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358上 17 5→
石經	△	△	△	△	△	△	△	△	△	△
寺版	王	量	○	○	○	○	○	○	○	○
再雕	王	量	○	○	○	○	○	○	○	○
金藏	王	量	○	○	○	○	○	○	○	○
資福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磧砂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普寧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永南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徑山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清藏	王天	邊	諸	佛	如	來	隨	衆	生	心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4”

類型	F	G	G	G	G-Z	H	I	I	I-Z	I-Z
項次	21	1	16	19	15	24	36	38	35	37
面 行 字	3 5 6 上 16 11	3 5 1 中 6 5	3 5 3 下 6 2	3 5 4 下 19 14	3 5 2 下 15 14	3 5 7 中 3 1	3 5 8 下 19 5	3 5 9 上 8 9	3 5 8 下 17 4	3 5 9 上 6 14
石經	△	○	○	○	△	△	味	細	△	△
寺版	異	○	○	○	○	名	味	細	法	那
再雕	異	○	○	○	○	名	味	細	法	那
金藏	異	身	千	見	便	名	味	細	法	那
資福	異	○	○	○	○	名	味	細	法	那
磧砂	用	○	○	○	○	名	味	細	法	那
普寧	用	○	○	○	○	名	味	細	法	那
永南	用	○	○	○	○	各	味	細	法	那
徑山	用	○	○	○	○	名	性	雨	世	耶
清藏	用	○	○	○	○	名	味	細	法	那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5 (敦煌本 包含)”

類型	J-C	J-C	J-C	J-C	K-D	K-D	L-C	L-C	L-C	L-C
項次	7	8	9	10	12	13	3	4	5	6
面 行 字	351下 10 8	351下 10 9	351下 10 10	351下 10 11	352上 4 10	352上 4 11	351下 9 14	351下 10 1	351下 10 2	351下 10 3
石經	△(慧)	光	普	照	△	△	△	△	△	△
敦煌	慧	光	普	照	○	○	除	減	衆	惡
寺版	普	照	饒	益	○	○	減	惡	饒	益
再雕	普	照	饒	益	○	○	減	惡	饒	益
金藏	普	照	饒	益	普	賢	減	惡	饒	益
資福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磧砂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普寧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永南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徑山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清藏	慧	光	普	照	普	賢	除	減	衆	惡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卷首

大方廣佛花嚴經卷第廿九
東晉天竺三藏佛跋致地譯

性起品之二
 介時普賢菩薩摩訶薩告諸菩薩言佛子云
 何菩薩摩訶薩知見如來應供等正覺此菩
 薩摩訶薩知見如來具足成就無量功德何
 以故如來應供等正覺非一法一行一身一
 刹化一衆生故此菩薩摩訶薩知見如來
 足成就無量法無量行無量身無量刹平等
 教化一切衆生故佛子譬如虛空一切色處
 非色處無處不至而非不至何以故虛
 空無形色故如來法身亦復如是至一切處
 一切刹一切法一切衆生而無所至何以故
 諸如來身非是身故隨所應化示現其相
 子是為菩薩摩訶薩初入勝行門知見如來
 復次佛子譬如虛空亦廣悉能容受一切衆
 生而無沫着如來法身亦復如是照一切衆

寺刊版 50卷本 華嚴經卷第29의 卷末

大方廣佛花嚴經卷第廿九

如來亦如是初時大法雲普覆諸法界雨甘露法
 令衆增善根除滅煩惱熱而彼甘露法不從身心出
 譬如大龍王名目摩那斯七日起重雲變作不降雨
 普令一切衆究竟諸善業漸降微細澤然後乃大雨
 乃刀興法雲普復諸法界雨大甘露法饒益諸眾生
 隨應受者為彼深法聞者不恐怖究竟感菩提
 譬如大龍王名目大莊嚴先布容重雲然後降大雨
 或二十日乃至百十日雨水等一味衆生致不同
 究竟至如來大辯彼岸或執于法門乃至百十門
 或說分四乃至无量行如來不坐念我分別法界
 譬如海龍王名目婆伽羅先興密重雲彌覆四天下
 普雨一切處各各悉不同龍王心平等亦無有憎愛
 家勝亦如是無上法龍王興起大悲雲普覆於一切
 為道場菩薩雨大甘露法隨其所應化如來心平等

к с і